

“부처님과 내마음 붓 끝에 일치”

‘김경호 전통사경의 계승과 창조展’

6월 20~26일 / 서울 경운동 부남미술관

“사경은 종합예술입니다. 단순히 글만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표지와 그림을 그리고 경감과 경함도 만들기 때문에 서예와 공예가 함께 어우러진 예술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 부남미술관에서 ‘김경호 전통사경의 계승과 창조展’을 여는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사친)은 사경 작업이야말로 모든 불교미술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는 총체적 예술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증거가 김 회장의 이번 전시회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사경전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강경 등을 옮긴 전통사경 10점 외에 선묘로 표현된 불화와 만다라 등 응용사경 10점, 목판본과 석각유물판본 및 동종의 문양 등을 복원한 문화재 복원사경 10점, 생활사경 10점, 창작사경 5점 등 총 45점이 선보인다.

김 회장의 글씨를 한번쯤 접했다면 정교함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의 글씨는 격조 높다는 평가가 많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필선과 선묘는 금은니로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섬세하고 미려하다.

“사경은 부처님과 내 마음을 붓끝에 하나로 모아 경전 글귀를 한 자 한 자 옮기며 매순간 일념으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참선 못지않은 수행 방편입니다. 보통 한 작품을 하는데 십지이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만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지요.”

김 회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이유는 끊임없는 사경 기법의 개발에 있다. 특히 응용사경은 동양의 상징을 그리거나 보살도, 만다라, 상원사경, 비현상, 불족도 등 불교미술을 손수 수정복원 한 뒤 사경을 곁들였다. 그래서 응용사경에서는 수직으로 곧게 선 붓의 에너지와 정화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 김 회장이 대표 작품으로 손꼽는



‘일불일자 법화경 약찬계’.

창작사경 · 선묘 불화 등 45점 전시 ‘일불일자 법화경 약찬계’ 아심작 녹교수에 금니 전통재료 사용 특색

아심작은 따로 있다. 창작 사경인 ‘일불일자 법화경 약찬계’다. 김 회장이 직접 장안한 독창적 방식에 의해 사경 됐기 때문이다. 틀기만 해도 정교함에 혀가 내들러진다. 우선 1cm의 공간 안에 부처님을 그린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복장에 법신사리를 봉안한다는 의미에서 2mm~3mm 정도의 깨알 같은 크기로 경전 한 글자씩 서사한다. 김 회장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cm의 공간에 많게는 50개가 넘는 가는 선을 그어 넣어 정교함을 극치를 표현했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일자일불법화경’이 있지만, 이는 1행은 부처님 경전을 서사하고, 다음 1행에는 부처님을 그린 이분화된 형태의 사경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사경재료의 선택에서도 독특하다. 주로 사용하는 먹 외에도 사슴에서 채취한 녹교수에 개어 금니(술



泥), 은니를 만들며, 사경 후에는 연마를 해 작품에 광택을 낸다. 특히 녹교수의 사용은 8세기 문헌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한 전통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02)720-0369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생가 복원 · 음악상 제정 등 윤이상 탄생 90주년 행사 다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 선생(1917~1995)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윤이상 선생의 생일(9월17일) 전후부터 타계일(11월3일)까지 열리는 기념행사는 8차례에 걸쳐 그의 교향곡·관현악·실내악·칸타타를 연주한다.

1959년 다름슈타트에서 윤이상의 작품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을 초연했던 지휘자 프랜시스 트레비스는 코리안 심포니를 지휘해 9월 16일 개막 공연에서 윤이상의 ‘소관현악을 위한 모음’을 들려준다. 윤이상이 문익환·백기완·고은 등의 노랫말에 곡을 붙인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도 10월중 부산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또한 평화재단측은 국제윤이상 음악상을 제정해 격년제로 시상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5일 입선작 5작품을 선정하고 9월 결선 연주회와 최종 심사를 거친 후 9월 16일 첫 수상자를 발표한다. 윤이상의 이름을 딴 ‘서울 윤이상 앙상블’도 상반기중으로 창단한다. 이외에도 윤이상 선생이 말년을 보낸 베를린의 생가도 복원에 생전에 그가 작곡한 악보, 유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이상 평화재단은 올해 기념 사업들을 위해 최근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90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02)723-0364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④

운문 스님 활동으로 작곡 개념 형성

1960년대 - 1970년 ①

김정목 포교사의 책에 실려 있는 내 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책은 제1부 삼보론, 제2부 의식편, 제3부 집단편, 제4부 어린이편, 제5부 경전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작사자별로 분석해보면 조하유 25곡, 권상노 15곡, 백용성 7곡, 김정목 44곡, 신소천 5곡, 석운문 4곡 김태홍 4곡, 조중현과 김어수 각각 3곡, 그밖에는 박희선, 석동화,

불교 음악에 작곡이란 개념이 없었다. 운문 스님이 등장하면서 작곡이란 개념이 형성된다. 본인이 작사한 뒤 작곡가를 직접 섭외하여 곡을 창작한 다음 그 곡을 직접 오르간을 치면서 포교하였다. 1956년에 목포에 있는 정혜사에서 한 학교에 근무했던 김재민 선생을 만나 운문 스님의 최초의 작품 ‘배하세’가 창작되었다. 그 후 1957년에는 추월성씨의 ‘삼보님 앞에’가 창작되었으며

1959년에는 해인사 금선진호, 이광수, 허영호 62년 조계사 연화어린이합창단 조직

직접 작사 오르간 치며 포교에 앞장

특히 일본인으로 목촌변과 하다상이 1곡씩 기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수록된 곡목은 모두 132곡이지만 작곡자가 기록된 찬불가는 21곡뿐이다.

1956년 정운문 스님이 불교음악 활동을 시작 했다. 김정목 포교사는 운문 스님에게 모든 곡을 이임하고 손을 놓았다고 한다. 기록된 문서를 보면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는 조하유 스님, 권상노 총장, 백용성 스님이, 1930년에서 1960년대까지는 김정목 포교사가 1960년대부터는 정운문 스님이 불교 음악의 선두에 서서 찬불가를 움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정운문 스님의 활동상황을 짚어 보자. 운문 스님의 등장 이전까지는

경소리’를 해인사에서 운영하던 초등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1960년에는 김기우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정민섭의 ‘하얀 구름 같은 구름’이란 창작곡이 나왔다. 1962년에는 김규환 선생과 김주영씨를 만났고, 1963년에는 김희조, 이해창, 이찬우, 김주명씨를 1964년에는 이호섭씨를 1965년에는 이수연, 이수인, 이은열, 조병선씨를 1968년에는 홍원기, 장상덕씨를 만났다. 많은 작곡가들에 의하여 쓰인 곡들은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사용되었다.

운문 스님은 1962년 3월 조계사 주지시절 연화어린이합창단을, 1964년 2월에는 개운사 보리수합창단을 창단했다. 1965년에는 서울 삼정동 철보사에 철보사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 불포교에 앞장섰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학회 사무총장)

詩講로 떠나는 임지기명 ⑤

팔공산 중암암

정인성 시인

팔공산 꼭대기 아슬한 절벽을 허리 친 노인이 기어 오른다. 가볍고 험거움 없이 물새로 거친 습소리가 자꾸만 새고 있다. 바람이 새고 있다. 바람이 새 때마다 조금씩 꿰어든 허리가 법당앞에 기어오르고 만다. 오래된 돌탑처럼 가볍고 험거움 없이 일순에 허물어져 동그랗게 엷드린다. 엷드린 옥신이 동그런 무덤처럼 편만해 보인다.



중암암(中巖) - 팔공산 꼭대기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조그만 암자

김덕수 사물놀이 50주년 공연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씨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인인생 50주년 기념공연-길’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박병천(진도씻김굿·인간문화제), 안숙선(가야금산조 및 병창·중요무형문화재), 이호연 등 특별출연자들과 김덕수가 이끄는 한울림예술단, 한울림전통연희단 등이 함께 한다.

특히 2부 공연에서는 김덕수씨의 화려한 발놀림과 삼모짓을 볼 수 있는 선반설장고, 판굿 등의 놀이판이 관객들과 함께 어울려 진다.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 이상 구매시 서양보이에서 차사돼 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200개 한정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2007학년도 제1기생 모집 구 성 기 학

담당교수	김도희
교수약력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교육기간	1학기 16주 화요일 18:30 ~ 21:00
개강일	2007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2시
교육목표	전반과 개운을 공유하는 학문으로서 시간에 따른 공간의 방향에 매겨지는 운기를 가능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기명법이다. 상담자들에게 기명의 기록을 줄이고 좋은 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는 네 목표를 둔다.
수강료	30만원
교재	특수교재
강의내용	1. 구성의 역사와 구성의 위치 2. 자백성(상원, 중원, 하원)의 구성과 음운, 양도법 3. 본명성 찾는법 4. 정반 구성노 5. 구성의 성격과 사주의 함수관계 6. 각궁의 성격과 십이지지의 함수관계 7. 각 궁이 가지고 있는 특성 8. 본명성과 구성의 성격 9. 구성으로 보는 건강상태 10. 구성이 김성과 혼인운 11. 구성으로 보는 사업운과 재운 12. 구성방위(가족, 학교, 수험생, 신)의 위치 13. 구성회자 년 월 일 시 짜는법 14. 구성의 알파 대층의 위치와 역할 15. 불변의 숫자 실천 사용법 16. 구성 실천사용 방법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담당교수 011-758-4000 / ☎02)745-8053
www.dongbang.ac.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리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완
분장/간장

강릉도 정선 동강 백운산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깨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청국장 분말과 완

▶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완을 만들 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완은 정선 동강알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된 쿤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만수를 이용하여 완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강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완 500g 25,000원
분 1kg 12,000원

바로보인 전등록 바로보인 전문염송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한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건강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중선 원공 기념 파격할인!!
3월말까지 바로보인 전등록 전50%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천부경 * 선을 품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사 * 바로보인 산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앎됨에 국화꽃 곱고 *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북산에 찾는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